

월간 증현

'80 3월호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 1 : 8)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하여 1970년 강남구 논현동에 6,000여평의 성전건축 부지를 구입하고 온 성도가「하나님의 전」짓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다. 기도의 tap이 쌓여진 결과 드디어 10년만에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매 지난 2월14일 성전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릴지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성전건축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완벽한 설계, 신용있고 양심적인 건축업자의 선정, 훌륭한 기술진 구성, 안전한 공사진행, 필요한 재정확보 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앞에 놓여 있다. 이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본다.

첫째는 필요한 재정확보다.

본당 팔조공사에 필요한 재정만도 약 3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문제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선포했을 때, 광야에서 임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미에게 벌당을 지으라는 명령만큼이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온 회중은 즉시 물러가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출35 : 21), “마음에 원하는 남녀”(출35 : 22),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출35 : 39)들이 여호와께 “즐거이”(출35 : 29)바치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기때문에 성막 건축하는 일꾼들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했다.(출36 : 3 - 7) 성막은 이미

바쳐진 예물로 넉넉히 건축되었고, 오히려 재료가 많이 남았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대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즐거이 드려 우리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둘째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업자, 현장감독, 기술자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용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문제다.

성전건축은 빌딩 건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출36 : 1)을 통하여 “여호와와의 부름 명하신대로”(출36 : 1)일을 하도록 하셨으며, 일꾼들로 하여금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출35 : 31)하셨으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출35 : 35)하시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손들이 수백년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이 건축되도록 모든 건축 일꾼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도록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전건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중심”과 “결손히 행하는 최선의 충성”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리라(*)

(추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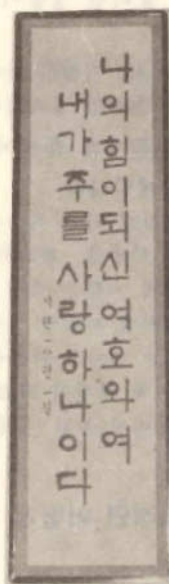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3호

통권 75호

월간충현



— 3월호 차례 —

권 두 언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다	주 간 · 2
이달의말씀	계속하여 성공자가 되려면	김창인 · 4
지 상 특강	주님이 세우신 성례	정상우 · 6

특집① / 예수님의 고난

고난주간의 명상	편집부 · 10
예수님 고난의 발자취	편집부 · 14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시간	편집부 · 15

특집② / 새 성전 건축 착공을 앞에놓고

성전 건축 기회주의를 감사	김기정 · 16
소중한 기도 제목	송선명 · 18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계은 · 20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판임 · 21
우리 모두의 바램	이성은 · 21

편집실칼럼	교회의 민주적 분위기	오태용 · 22
찬송가감상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김하진 · 22
도서 정보	2월중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23
책 소 개	구약신학 논문집	김하진 · 23
기독교윤리	생활속의 윤리(성)	김하진 · 24
선 교 월 보	해외선교지 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 역 소 식	2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명단	편집실 · 28
권 찰 수 첩	효과적인 심방	김재창 · 29
주간의만나	시편 66편	김창인 · 30
교 회 소 식		편집부 · 31
3 월 중 행 사		편집부 · 34
편 집 후 기		편집부 · 34
답 한 다	세례란 무엇인가	허 준 · 35
실로암못가에서		· 36

표지설명 / 마지막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어깨위에 메여진 십자가의 무게로 비틀거리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모습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계속하여 성공자가 되려면

〈렘 / 17 : 5 ~ 8〉

김 창 인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하여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라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과거에는 성공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오면 개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후손들이 불쌍해집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시원치 못했어도 지금은 좋아, 앞으로는 희망이 있지.” 이런 말을 들으면 개인도 좋고 후손에게

도 좋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과거에도 잘 했지만 지금은 더 잘하고 앞으로 희망이 많아.”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과 사람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버젓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공한 교회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중현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보다 충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에 마음 놓고 게으르다가 이미 받았던 복을 잃어 버리면 우리는 너무 불쌍해 지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 뭉개지 말고 과거에 못한 것 탄식하지 말고 오늘부터의 여생이 계속하는 성공을 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성공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치하는 사람이 권세와 지위가 높아질 때, 공부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가 높아질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성공이고 욕을 돌리면 실패입니다.

그 민족이, 그 국가가, 교회,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성공이고 욕을 돌리면 실패입니다.

둘째 나와 관계 있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면 성공이고 손해를 끼치면 실패입니다.

부모님의, 형제들의 자랑감이 되고 가문을 빛내이면서 나와 관계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와 관계있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 주면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 성공이고, 나와 관계있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괴롭히면 실패중에 실패입니다. 비록 장관이 되고 억만장자가 되어도 오고 오는 후세대에 복된 일을 못하면 그는 무서운 실패자입니다.

2. 계속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공은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숨도 계속해서 쉬어야 되고 음식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성공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계속하는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교만의 병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개인의 영혼에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병들면 계속해서 성공이 되는 복이 없습니다. 병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교만에 병들면 이미 받았던 복은 쏘아내고 새로이 복 받을 길은 끊어집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부흥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맙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맺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현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박사가 되어도, 억만장자가 되어도 나는 남보다 낮거나 하면 성공은 그 시간이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계속 성공을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경솔해지고 교만하면 잔인한 성격이 싹튼다.

전구가 아무리 훌륭한 빛을 내도 스위치를 뽑으면 캄캄해 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알고 교만에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회를 놓치면 원수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고 떨어지고 원수는 기회를 얻어 올라가게 되니 두절음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보는데 게으르면 잡념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욕심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준비할 때는 찢찢 매다가 일을 당하면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충현교회 교인은 기회를 놓치는 게으른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 안 하고 게으르다가 낙제하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나보다 좋은 사람앞에 떨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장래가 있고 나도 부끄럽지 않지만 놀다가 떨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세째 욕심은 이겨야 합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허락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많은 돈을 모

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돈을 모으려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나라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면 바늘 한 개를 가지려 해도 욕심이고 도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개인의 성공은 청결에 있습니다. 욕심에 때문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야 사리를 판단해서 먼저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장래를 봅니다. 성공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째 필요없는 경쟁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시간 공부할 때 나는 열두시간 하겠다. 다른 사람이 세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다섯시간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것 같은데 경쟁심은 멸망을 낳습니다. 그것은 남보다 떨어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한 남보다 앞서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껏 다해서 남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보다 떨어지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다섯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반역의 시작이고 원수와 대통하는 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나라를 뒤엎는 원수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가시나무 구실만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당파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구름이 실력을 발휘해야지’ 하게 되면 벌써 화목은 깨진 것입니다. 구름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있다면 그 구름은 벌써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파는 위인을 죽이고 지도자를 죽입니다.

이 여섯가지 병에 들지 않아야 계속해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병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병을 치료합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쉬지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남은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예쁜 꽃이 피고, 충실한 열매가 맺는 귀한 신앙 인격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성례



정 상 우 목사

(부목사 · 교육위원회 위원장)

I. 성례란 무엇인가

1. 성례(세례)라는 낱말의 뜻

“성례”라는 낱말은 성경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낱말은 라틴어 “세크라멘툼”(Sacramentum)에서 나온 말로서 “신성한 것으로 내어 놓은 것”(a thing set apart as Sacred)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성별해서 헌납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에 패소한 사람이 낸 공탁금을 물수하여 신전에 드린 헌물을 가르켜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으며 또한 로마 군대에서 군인으로 입대하는 병사가 황제나 장군에게 하는 충성의 서약을 가르켜서 “세크라멘툼”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성례(Sacrament)라는 낱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채용하게 된 것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마치 로마의 군인들처럼 주님께 순종과 충성을 서약하기 때문이며 또한 제롬(Jerome)이라는 분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헬라어 “퀴스테리온”(비의 비밀)이라는 말을 “세크라멘타”(Sacramenta)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순종”과 “비의”의 보증으로 생각되었기에 “성례”(세크라멘트)라는 낱말을 세례와 성찬에 적용한 것이다.

2. 성례의 정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감각적 표로써 표시하여 인지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니라.』

(요리문답 제92문)

위의 글(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성례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성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이다.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세례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으며(마28:19)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마26:26-28; 눅22:17-20; 막14:22-25; 고전11:2) 그러므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며 신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성례는 새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可視的〉인 표인 것이다.

구약에서 옛 언약의 표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으며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표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세례와 성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의 약속을 보여 주는 인표요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과 순종의 인표가 되는 것이다.(창9:12; 17:11; 고전11:25; 롬4:11; 2:29; 6:3; 막16:16; 고전10:16; 갈3:27)

여기서 우리가 유의 할 것은 성례는 신자가 되는 표가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신자임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③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부패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중생, 성화시키면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영적 행복들과 덕성을 베풀어 주시는 방편을 말한다. 그런데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성례(세례·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크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L. 벨코프 박사는 성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것에서 감각할 수 있는 표호들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치되고 적용되어 그들의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충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3.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와의 관계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인데 할례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은혜언약의 성례이며 유월절은 할례에 추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은혜언약의 “증표” 혹은 “인표”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양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니 구약의 할례는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언약의 인표로서 남자들만이 받았다. (할례는 양피를 베는 것으로 피를 흘린다.) 그런데 신약의 세례는 여자들도 다 포함되었으며 물로써 실시한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결례가 합친 것이 된다.

곧 의식은 결례처럼 행하고 뜻은 할례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세례인 것이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치고 누룩없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의 성찬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구약의 성례는 모두 피로써 인쳤으나 신약의 성례는 피없는 성례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바로 신약의 성례는 구약의 성례의 후신이라 할 수 있으니 세례는 할례의 자리를, 성찬은 유월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4. 성례의 수

천주교에서는 일곱가지 성례를 말하고 있다. 즉 성세, 견진, 고해, 성체, 종부, 신품, 혼배 등이다. 그러나 여기 일곱가지 중에 성세(세례)와 성체(성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며 그들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성경적인 참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의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 두가지였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역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와 성찬 두가지 뿐인 것이다.

5. 성례의 필요성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교회에서는 세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행한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되었고 이미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더욱 크신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성례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또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과는 관계없이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이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성례에 대한 신령한 뜻을 설명해야 하며 이 말씀을 근거로해서 성례를 집행할 때 비로써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온전해 질 수도 없는 것이다. 말씀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성례는 그렇지 않으며 말씀만이 신앙을 일으킬 수 있으나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II. 세례란 무엇인가

1. 세례의 뜻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接合)됨과 은약(恩約) : 은혜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마 28 : 19 ; 갈 3 : 27 ; 롬 6 : 3, 4) (요리문답 제94문)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문부하신 성례로서 (마 28 : 19) 죄를 씻어버리며 (행 22 : 16)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롬 6 : 4 - 6) 하나님의 자녀로써 (갈 3 : 26, 27) 은혜언약의 모든 유익의 참여함을 표시하며, 인치며 전달하는 예식인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과 충성을 서약하는 공적 신앙고백이며 아울러 유행교회 (有形敎會)의 입회를 표시하는 위장이 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다.

2.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세례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신도재요 28 : 4)

세례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

하여 신앙을 고백한 장년(어른)들과 신자의 자녀(영아)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영아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아기로서 부모의 신앙적인 합의가 있을 때 받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들어본다면 장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①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며(막 16: 16; 행 2: 41, 8: 37, 16: 3-34) ② 상당한 정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모르면 사실 참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회에서는 현재 장년새신자부에서 학습반과 세례반에서 각기 6개월간의 교육을 일년동안 시키고 있다. ③ 지난 날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죄된 옛 습관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는 성경에는 영아 세례를 베풀라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구약에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만인 영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영아세례를 암시하고 있으며(창 17: 9-14; 롬 4: 16-18; 고후 6: 10-18; 갈 3: 8, 9) 할례와 세례가 모두 은혜언약이며 영적 언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영아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에서도 영아들이 세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영아세례는 원리상으로는 부모가 모두 신자인 경우에만 영아세례를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신자이어야 자녀의 세례에 대한 참된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중에 한분(아버지나 어머니)이 믿어도 부모간에 합의만 하면 영아세례를 베풀 수 있다. 영아세례를 베풀 때 부모는 자녀의 세례식의 보증인으로서 ①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며 ② 어린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어야 하며 ③ 온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친히 경건한 본분을 자녀에게 보이도록 힘쓰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이 자녀(아이)가 자라나게 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예배모범 제9장 참조)

3.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담근 후에 나타나게 하는 침례만의 세례의 유일적정한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침수하는 것만이 세례의 유일한 양

식으로 보지 않으며 물을 뿌리는 것도 성경적인 양식임을 주장한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의 어느 양식도 규정하지 않으셨으며 성경도 어떤 특별한 양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어원적으로 “받토”(βαπτω)나 “바티조”(βαπτίζω)의 뜻이 반드시 침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찍는 것”, “적시는 것”, “뿌리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가지 세례 양식을 모두 인정한다. 침수만이 유일한 양식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으로서 세례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주례자인 목사의 권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목사가 주례한 세례이면 어떤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는지 같은 것이다.

4. 세례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

세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실체적으로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①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며 ②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스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며 ③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과 ④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선권과 피선권을 가지게 된다.

III. 성찬이란 무엇인가

1. 성찬의 뜻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와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는 양육과 은혜중에서 장성함이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니라』(요리문답 제96문)

성찬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 날밤에 다락방에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로서 (마 26: 26-29; 막 14: 22-25; 눅 22: 19, 20. 고전 11: 23-25)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제도인 것이다.

이 성찬이 뜻하는 바는 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②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신자된 우리들이 동참하는 것이며 ③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은 은혜의 방편이며 ④ 주님과 신령한 교제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은 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침표가 되며 ②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이다”하시는 구속에 대한 보증이 되며 ③ “언약에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모두 네것이라”하시는 축복의 확증과 이에 대한 청구권의 보증이며 ④ “네안에 지금 영생하는 생명과 구원의 행복이 현실적으로 있으며 장차 더욱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하시는 확증과 인침표가 된다.

그리고 성찬을 받는 신자의 위치에서는 “저는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하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예식인 것이다.

2. 어떻게 성찬을 거행하여야 하나

성찬은 목사만이 집전할 수 있으며 목사가 성찬에 관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그 축도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떡은 무교병(누룩없는 떡)으로 사용함이 합당하며 주님의 죄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마 26: 29; 눅 22: 18)으로 포도즙이어야 한다.

3.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성령의 중생을 받고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신자(세례받은 자)이어야 한다.

성찬은 신령한 의의를 모르는 불신자나 어린아이들(영아 세례를 받았어도)은 참여할 수 없으며 세례받은 신자라 할 지라도 실수하고 범죄하여 책벌 아래 있는 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지난 날의 자기생활을 살펴보고 반성과 회개를 철저히 한 후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가?
- ②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은가?
- ③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는가?
- ④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였는가?
- ⑤ 주님께 충실히 순종과 충성을 하고 있는가?
- ⑥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중에 살고 있는가?

등을 살피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죄하고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

전 11: 27-29)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명상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는 결심을 다짐하면서 참여하여야 한다.

4.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은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위에 받는 은혜로서 은혜를 더하는 분량의 증보인 것 뿐이다.

이 은혜위에 은혜로써 받는 축복은 양육과 성장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믿고 성찬에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때 실제적으로 그 효력은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찬의 은혜는 성찬을 베푸는 사람의 덕이나 그 요품(떡과 포도즙)의 물질적인 요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적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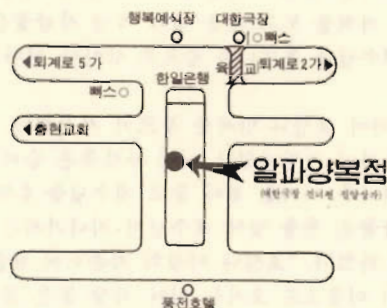


◎ 선물용 티겔 발행

◎ 출장 주문 · 가봉

알파양복점

대표 김은호 장로



충무로 4가 125의 1 (대한극장 건너편)

진양상가 라열 152호

전화 261-2876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의 의미와 오늘날의 적용 등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난주간을 위한 특집을 마련한다. 2000여년전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주님이 당한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으면서 하루 하루를 명상하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한다.



고난 주간의 명상

편 집 부

주일 (주후30년 4월 2일)

예루살렘에의 승리의 입성

〈마21: 1-11, 막11: 1-11, 눅19: 29-44, 요12: 12-19〉

주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월절을 며칠 앞 둔 예루살렘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월절 양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 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쪽에서 들어 오셨다. 전에 갈릴리지방에 제실 때에 그의 교혼을 듣고 도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얻어 먹던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을 유대나라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호산나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표시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퍼기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외치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진동하였다.

예수님은 스가랴 9: 9에 있는 말씀대로 왕으로 그의 도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그러나 군중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군중들은 제한된 한 민족의 왕, 육체의 왕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의 왕되심은 온 우주의 왕이요, 영원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월요일 (주후30년 4월 3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마21: 18-20, 막11: 12-14, 20, 21〉

성밖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쉬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었다. 도중에 시장기울 느끼신 예수님은 매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셨다. 그러나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마21: 12, 13, 막11: 15-17, 눅19: 45, 46〉

성안에 들어 오신 예수님은 그 길로 곧 성전에 가시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타스라고 소란한 것을 보셨다.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으셨다. 짐승을 내몰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 쫓았다. 돈 바꾸는 상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책망을 듣는 자들의 눈길은 회개의 빛 대신

에 시기와 원망의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어디 두고 보자”식의 노기였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 전과 같이 쉬시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셨다.

화요일 (주후30년 4 월 4 일)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하시다

(마21:20)

그 이른날 제자들은 성으로 들어오는 도중 놀라운 것을 보았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성급한 베드로는 놀라운 얼굴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음의 교훈을 해 주시었다.

성전 안에서 힐란을 받으시다

(마21:23-27; 막11:27-33; 눅20:1-8)

성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제의 그 성전으로 가시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힐란한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서기에 찬 질문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무지에 찬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여러가지 비유로 저들을 깨우치려 말씀하셨다.

말 안 듣는 만아들의 비유(마21:28-32), 사악한 농부의 비유(마21:33-41; 마12:1-9; 눅20:9-16), 왕자의 잔치를 거절한 악한 사람들의 소행(마22:1-14) 등을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질문을 하였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부활 때 일곱중에 누 아내가 되리이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답변하시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마24장, 막13장, 눅21장)과 주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들(마25장)을 교훈하여 주시었다.



수요일 (주후30년 4 월 5 일)

유다가 배반하다

(마26:14-16; 막14:10, 11; 눅22:1-6)

예수님은 아직 성밖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제실 때 한편 성안 가야바 대제사장 아문에서는 예수님을 체제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중 하나인 가롯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 나와 대제사장의 회의장으로 달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고 협상한다. 제사장들은 기회가 왔다는듯이 은30을 달아 가롯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노리고 있게 된다.

목요일 (주후30년 4 월 6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요13:1-17)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성내의 한 여성도의 집 이층 다락방으로 가시었다. 거기에는 유대인



의 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누룩없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가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 그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씻기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답하시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겸손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었다.

반역자를 지목하시다

〈마26 : 21-25; 막14 : 18-21; 눅22 : 21-23; 요13 : 21-30〉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심히 민망한 표정으로 “너희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여 누구오니이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며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셨다.

이 말을 들은 가롯 유다는 기분 나쁘다는듯이 나가 버렸다. 자기의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

다. 이제 사단은 완전히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마지막 만찬이 베풀어지다

〈마26 : 26-29; 막14 : 22-25; 눅22 : 19〉

이와같은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첫번 성만찬식을 베풀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마26 : 36-46; 막14 : 32-42; 눅22 : 39-46; 요18 : 1〉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이 산 서쪽 기슭 아래에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최후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던질만한 거리로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와 같은 땀이 떨어졌다.

금요일 (주후30년 4월 7일)

예수님이 잡히시다

〈마26 : 47-56; 막14 : 43-52; 눅22 : 47-53; 요18 : 3-13〉

예수님은 기도중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온것을 느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온것을 환기시키고 있을 때 무리들은 몽치와검을 가지고 올라 오고 있었다. 그중에는 열두 제자 중하

나였던 가롯 유다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서더니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군호의 간사한 입맞춤이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악당들에게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심문을 받으시다

〈마26 : 57, 27 : 26, 30; 막14 : 53, 15 : 15; 눅22 : 54, 23 : 24; 요18 : 13, 19 : 1 - 6〉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유대인의 하속들은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있을 때 저들은 분을 내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러나 재판권이 없는 저들은 당시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저들은 여러 말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으나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고 석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저들의 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들은 너무도 무지하고 끔찍한 말을 한다. 빌라도는 민란이 날까하여 자기 신변을 위하여 의인을 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27 : 31 - 53; 막15 : 20 - 38; 눅23 : 26 - 45; 요19 : 16 - 30〉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갖은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 큰 십자가를 지워 끌고다란 언덕으로 끌고 갔다. 십자가를 지고 힘이 없어 쓰러지면 저들은 채찍질한다. 그러나 말이 없으셨다.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았다.

누구를 위한 채찍인가? 곧 예수님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사정없이 들어갔다. 피가 이마에서 양손과 양발에서 흐른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다. 누구를 위



한 십자가인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리어다”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열 두 용되는 천군 천사로 저들을 멸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는가” 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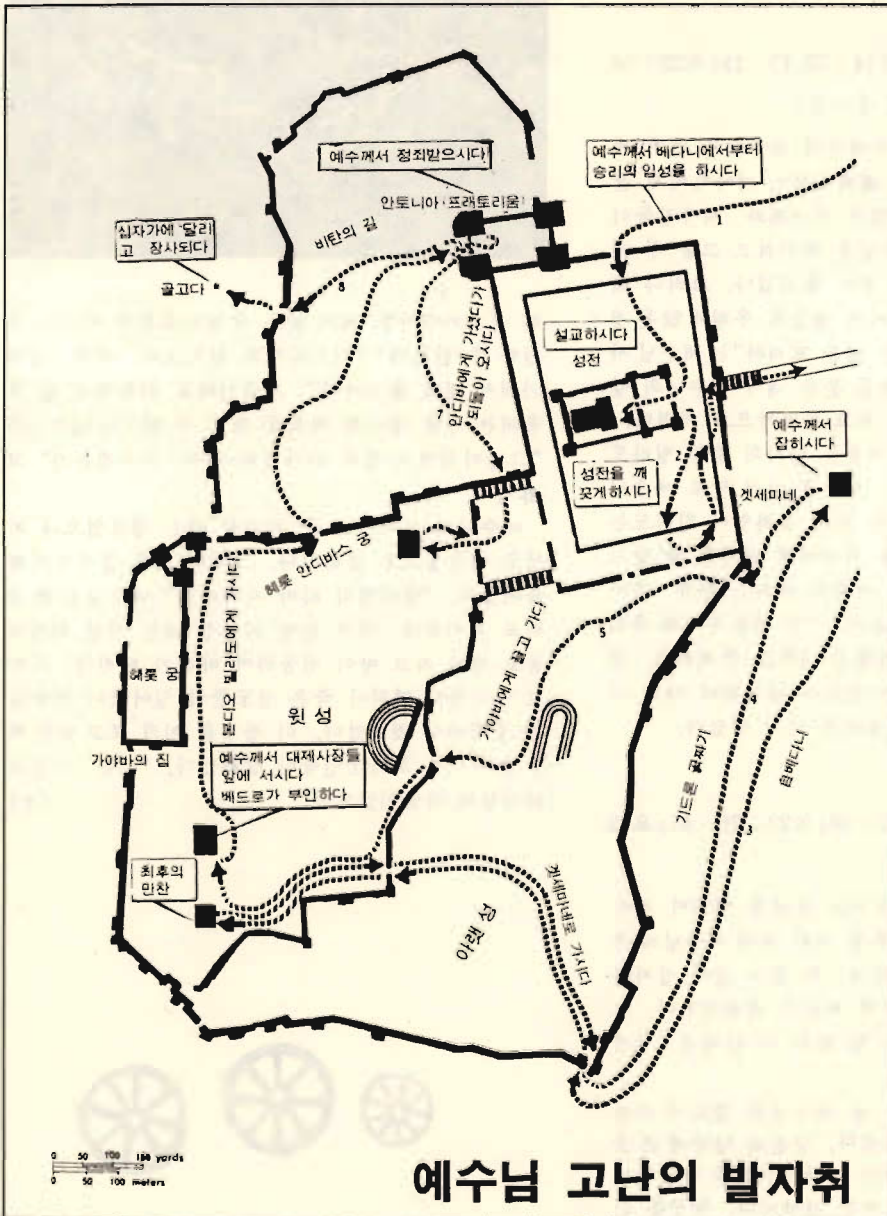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정오였으나 지상은 어두움으로 덮혀진다.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다시 한번 외치실 때는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 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백부장과 다른 로마군인들이 말하였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



* 특집/예수님의 고난

예수께서 뱀바게 건너 마을에서 발견된 나귀새끼를 타고 승리의 임성을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유하시게 되었다. 그는 호산나 찬송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의 영접을 받으셨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예수께서는 임성하신 후 성전에서 가르치신 다음 베다니로 돌아 오셨다. 다음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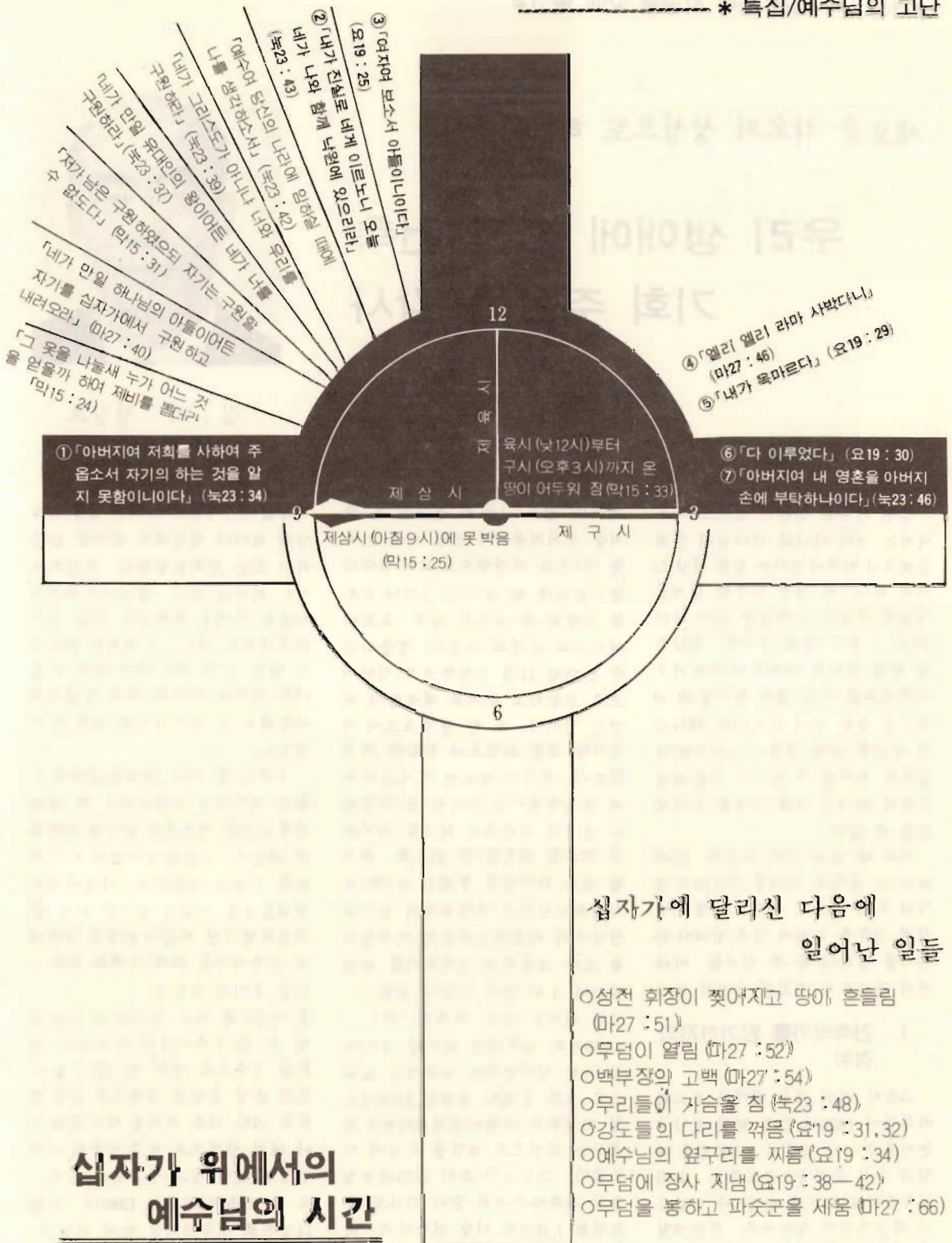
만찬 후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겿세마네동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는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유다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 와 스승을 배반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가아바의 집으로 끌려 가셨고 거기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다시 대제사장이 주재한 비공식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셨다.



법정 뜰에서 불 쪼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셨다.

그를 심문한 자들은 예수의 대답을 참람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혐의를 씌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죄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함으로써 황제에게 반역하였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로마군병들에게 끌려 골고다로 향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골고다는 예루살렘 제2성벽 밖에 있는 낮은 언덕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로마식 처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박혀 운명하셨다. 예수의 시신은 이곳에서 가까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

-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림 (마27 : 51)
- 무덤이 열림 (마27 : 52)
- 백부장의 고백 (마27 : 54)
- 무리들이 자승을 침 (눅23 : 48)
- 강도들의 다리를 꺾음 (요19 : 31, 32)
-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 (요19 : 34)
- 무덤에 장사 지냄 (요19 : 38-42)
- 무덤을 봉하고 파숫군을 세움 (마27 : 66)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시간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하나되어야

우리 생애에 성전 건축 기회 주심을 감사



김 기 정 장 로

(건축위원장)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새 성전 건축할 대지를 강남구 논현동에 매입한 것이 어언 10년. 그동안 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인해서 이제야 겨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허무함을 금할 길이 없지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 성전 건축 착공을 앞에 놓고 그 동안의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본다

1.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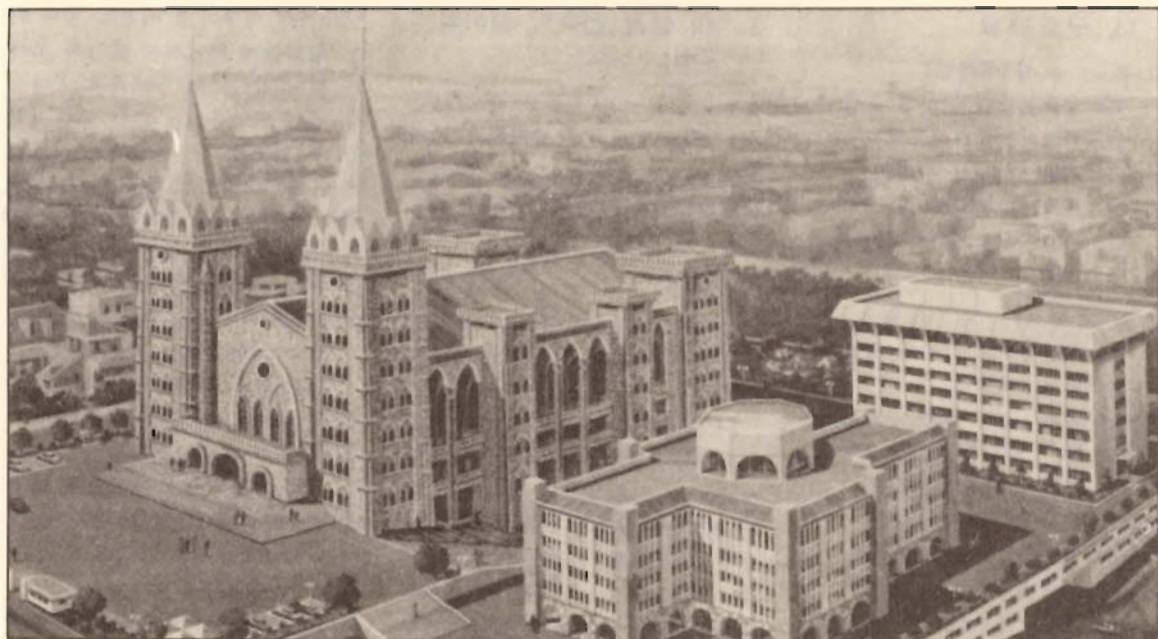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한 바와같이 1970년 12월 30일 강남구 논현동 7-11 잠종지 9,000평을 매입과 동시 문화공보부로부터 교회 건축부지로 확인을 받은 바 있었으나 행정당국의 영동지구 종합개발에 따르는 도시계획 특별법으로 환

지(6,067평으로)를 해 놓고는 본 주지를 주거전용지역(2층 이상 건축 못 함)으로 책정함으로 교회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당국 요로에 여러차례 진정과 아울러 절충하던 중 1975년 12월 9일부로 또 일방적으로 고등학교 부지로 재책정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한 당국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원활히 되지 못했다. 부득이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전시장)을 방문하고 당국의 일방적인 처사를 지적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받은 후에도 시(市)도 시계획위원회의 수습차례의 회의와 상당수의 자문위원회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고등학교 건축부지를 해제 받는데 1년 반의 시일이 걸렸다. 또한 해제도 전면 해제가 아니고 1,659평의 일부에만 해제된 것이다. 참 딱한 일이었지만 계속적인 노력으로 그후 1년이 경과한 1978년 6월 20일부로 어린이공원 695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말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소위 1978년 8월 3일 건축억제조치 중의 하나로 종교건물 1,000평 이상 건축억제 대상에 해당되어 또 다시 담보 상태가

계속됐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때마다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위원장인 본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죄인으로서의 한없는 무거운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자신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계속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979년 12월에 부동산 건축억제 전면해제로 새 성전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당국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동안 갖추었던 모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시청에서는 설제도면을 세밀히 심의를 하던 중 서울특별시장 자신이 현장을 답사하고 건축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이게 되었다.

① 전입로를 현재 도로의 배 이상 넓힐 것. ② 7층이었던 선교센터 건물을 5층으로 낮출 것. ③ 7층이 상인 본당 종탑을 5층으로 낮출 것 등등 기타 많은 조건을 제시 받았으나 여러 방면으로 설득 절충한 끝에 전입로 넓힐 것과 선교센터 5층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1980년 2월 14일부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실로 건축허가를 위하여서만도 5년



〈새 성전 조감도—우리는 늘 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해야 한다.〉

이 넓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어렵게 건축허가를 얻고나니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들이 새삼스러워지며 또한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일을 돌아보지 않고 애쓰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배후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또는 성전건축할 현장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여 주신 당회장 목사님 이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현장요원과 특별히 지난 4년동안 건축위원장인 본인을 도와 건강하시지도 못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당국 요로에 매일 출근하시며 하며 관제 인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그 내용과 교회의 사정을 납득시키기에 전력을 기울이며 노력하여 주신 한영기집사님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현장사무소 약 100명을 가설하고 새 성전 설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여 가면서 대지정지공사, 지하수 개발(지하 약 140m), 외선 전기공사, 상수도공사(수

도관 6인치), 일부 하수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만 나오면 즉시 공사 착수할 수 있게 건축자재 중 중요 자재인 철근 1,000톤, 자갈 모래 1,270차, 시멘트 40,000포, 비계목 500본을 확보하여 놓았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굴지회사 중 1위부터 30위 이내의 5개 회사를 선정하여 1980년 3월 7일 5개 회사를 현장에 소집 설명하고 그 회사들로 하여금 15일안에 도면 검토와 공사비 산출을 하게끔 하였다. 오는 3월 30일 이내에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4월 초순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2. 새 성전건축에 대한 규모 (건축허가상) 와 구조

가. 면 적

(1) 본 당 (예배당)	
지하층 :	2,125.80M ² (644.18평)
1 층 :	3,429.80M ² (1,039.33평)
2 층 :	3,629.00M ² (1,099.70평)
3 층 :	1,970.60M ² (597.15평)
4 층 :	1,137.48M ² (344.69평)

5 층 :	695.72M ² (210.82평)
옥탑1층 :	288.00M ² (87.27평)
옥탑2층 :	288.00M ² (87.27평)
연면적 :	13,564.40M ² (4,110.41평)

(2) 교 육 관

1 층 :	1,549.76M ² (469.62평)
2 층 :	1,549.76M ² (469.62평)
3 층 :	1,549.76M ² (469.62평)
4 층 :	1,549.76M ² (469.62평)
5 층 :	1,549.76M ² (469.62평)
옥탑1층 :	288.00M ² (87.27평)
옥탑2층 :	252.00M ² (76.36평)
연면적 :	8,288.80M ² (2,511.73평)

(3) 지하주차장

지하1층 :	6,152.90M ² (1,864.51평)
지하2층 :	7,232.90M ² (2,191.78평)
연면적 :	13,385.80M ² (4,056.29평)

(4) 선교센터

1 층 :	640 M ² (194 평)
2 층 :	640 M ² (194 평)
3 층 :	640 M ² (194 평)
4 층 :	640 M ² (194 평)
5 층 :	640 M ² (194 평)
연면적 :	3,200 M ² (970 평)
총합계 :	38,439 M ² (11,648.43평)

나. 구조 개요

(1) 본 당(예배당)

-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 골조
- (나) 벽돌벽: 콘크리트벽
- (다) 외벽: 화강석 부치기
- (라) 내벽: 음향벽체 및 기타
- (마) 지붕: 철골트라스 동판마감 지붕

(2) 선 교 센 타

-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 골조
- (나) 벽체: 벽돌벽
- (다) 내벽: 경량 재료 간막이, 물탈위 페인트 마감
- (라) 외벽: 타일마감

(3) 교 육 관

-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골조
- (나) 벽돌벽
- (다) 외부: 타일마감
- (라) 내부: 물탈위 페인트칠
- (마) 지붕: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 지하 주차장

- (가) 교육관과 같음

3. 새 성전 건축의 설비와 장비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새 성전은 그 규모가 국내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기에 이에 맞는 설비와 장비를 갖추 계획이다.

가. 본당

본당에 1층에는 큰 규모로 보면 3개의 집회실이 있다. 이를 실별로 세분하여 보면

1) 소강당

소강당에 집회 자석수를 1,200석 정도로 하여 소규모의 무대와 강대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회의를 대비하여 3개국어를 300명 이상이 청취할 수 있도록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번역실을 두었다. 또한 여기에서 집회하는 광경을 다른 부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ITV 카메라 설치를 하였고 ITV 카메라에

맞추어서 특수조명 계획도 국제 어느 집회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색을 해 보았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나 음악을 할 때에 뒷배경이 될 수 있도록 자동시설을 고려하였으며 오디오시설도 현대식으로 하였다. 여기에 부속실로 출연자(강사) 대기실, 영사실, 조명조정실, 음향조정실, 3개의 번역실 등이며 관람석은 계단식 오디토리움 형식이다.

2) 성가연습실(스튜디오)

성가연습실은 성가연습하기는 물론 녹음을 할 수 있고 비데오에 담을 수 있는 녹화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스튜디오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관람석은 300석 이상 계단형식으로 하였다.

3) 소집회실

이곳은 교회의 조그만 행사나 소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결혼식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이고 바닥은 평평하게 하였다.

새 성전 건축 착공을 앞에 놓고

소중한 기도제목

송 선 명

(고등부 2년)

월간 충현 편집실에서 새성전 건축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다만 글과 글이 의미 없이 모여 이룩된 즉 충현지 일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과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다.

작정한 천축 현금을 이미 다 냈고, 교회에서 나눠준 저금통을 가득 채웠다고 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나의 임무가 끝나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나머지의 일에 대해선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교회 지도 교역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깊이 못한 소견으로 생활해 왔었다.

그러기에 이 무겁지 않은 질문으로 나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직접 내게 이렇게 물으시며 안타까와 하시는 모습이 초라한 영의 옷을 입은 내게 선명히 나타났다. 주일마다 봄비는 교회 마당에 서서도 내겐 전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새 성전 건축이 빨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원망만을 품어 왔다. 불편함 속에서도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만 원망한 것이 문제의 가장 커다란 원인임을 깨달았다. 날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커다랗고 소중한 기도 제목을 망각한 채 넓지 못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현 생활을 위한 간구만이 내 기도의 전부였다. 하루에 몇분 켜이라도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충현의 새 성전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 아닌가. 충현식구 한명 한명이 간절한 심정으로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마무리 될 것을 믿고 확신한다.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충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4) 본당 2층 대예배실

본당 대예배실은 본당 2층에서 4층까지를 설계 하였고 예배의 인원좌석을 6,000석 이상으로 하였다. 이곳에도 ITV 시설, 특수조명시설, 완전 오디오시설 등 3개국어 동시 번역시설 등을 하였고 예배실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각부 사무실이나 선교센터 각 사무실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설을 하였으며 만일의 경우에 본당의 좌석이 모자랐을 때를 대비해서 소강당이나 소집회실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대형 스크린 TV 계획을 해 놓았다. 또한 천정 속의 조명실을 이용하여 특수조명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관이나 선교센터의 시설은 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4. 성전건축의 발주계획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1차 발주는 국내 굴지의 회사를 선택해서 발주를 할 계획이다. 1차 발주의 내

용은

가. 본당 전체의 골조공사와 지하 방수공사, 지붕 철골구조에 동판 지붕공사 까지 본당 1차공사로 하고

나. 교육관 골조공사와 옥상 방수까지

다.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와 옥상 방수, 지하방수 까지를 1차로 하였으며 2차 발주는 내부 음향벽체공사, 벽돌을 쌓고 외부 돌 붙이는 공사, 전기 냉난방, ITV, 통신, 조명 등등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며 1차에서 제외되었던 선교센터 계획도 2차공사에 포함시켜 보고자 한다.

2. 새 성전 건축착공을 앞에 놓고 우리의 각오와 부탁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이모양 저모양으로 애써왔다.

이제 새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현재의 성전 건축 때를 생각해 본다. 6·25동란 직후 아직도 전쟁의 끝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때였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 성전건축에 열과 성을 쏟았다. 매 주일 조금씩 높아지는 성전건축의 진행을 손바닥으로 쓸어 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성전건축에 최우선을 두고 생활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 짐만 되어 있다면 새 성전 건축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때를 교훈삼아 오늘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우리의 각오를 모두가 새롭게 했으면 한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과 건축관계 실무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다.

새 성전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건축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보다

새 성전 건축 착공을 앞에 놓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 계 온

(제일성가대원)

주님께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10여년 동안 충현의 식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원하며 간구했던 새 성전의 건축허가가 지난 2월 14일 최종적으로 승인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분명 주님께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깨어 땀 흘리며 일할 때인 줄로 안다. 자책하지 말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헌신의 자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안다. 안일에 흐려지며 타성에 빠져 허송세월 한다면 누가 감히 이 엄청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주님의 전을 건축 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손색이 없는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도록 몸과 마음의 헌신!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다. 그

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의 봉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어렵게 풀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현실의 고통(주일이면 절실히 느끼는 장소가 비좁아 제대로 활동 못함)을 참고 미래의 충현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을 마옵것 쏜자.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성전 건축이 시급하게 느껴진다. 언제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선 분명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만배나 값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전진 해야겠다.

이 크나 큰 일을 앞에 놓고 과연 열심으로 기도하며 물질의 부족함 없이 힘써 왔는가? 우리 모두 엄숙히 반성해 보자.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옮겨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정성을 묶어 새 성전 건축의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기도하자.



〈논현동 새 성전 건축현장 곧 작업이 시작되어 금년에는 새 성전의 골격을 볼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면 싶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두가 간절한 심정으로 새 성전 건축에 마음을 하나로 모두워야 한다. 그래서 새 성전 건축현장에는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있고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주일 오후나 평일에도 찾아 가서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절대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는 이런 관심위에 기도와 정성어린 헌금이 필요하다.

새 성전 건축하기까지 10여년이 나 세월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모두가 많이 지쳐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나 이제부터는 착공하게 됨에 따라 매일 매일 그 진행의 변화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실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매일의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으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새 성전 건축의 한부분들을 담당하자. 우리가 우리의 생활속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정성껏 바칠 수만 있다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새 성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성전 건축의 역사가 우리의 일생 중에 있게 되어 우리의 후손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큰 복이 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자오와 정성으로 새 성전 건축의 대열에 참여하자. (*)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 관 임

(청년부회원)

새 성전이 건축된다.

존엄하고 거룩하게 와 닿는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썼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말았다. 다윗의 파란 많았던 생애에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않았기에 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모든 준비한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말았다.

이처럼 성전을 다윗과 같이 준비만하고 마치는 결과가 아니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건축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충현의 성전 건축도 파란이 많았다. 오래 전부터 마련해 놓았던 대지 위에 이제야 실현을 보는 그 점도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온 성도들이 열병을 앓듯하며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요는 어떤 성전이 건축하여질까 때 궁금해지고 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뿐이다.

요즘 우후죽순처럼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모양이나 건축 양식은 각양각색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며 웅장하여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게 방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실상 오밀조밀하여 이모저모로 쓸 수 있는 장소는 적다. 그런 성전을 볼 때마다 곧 외형적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냐고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우리 새 성전이 논현동에 그 품위를 드러낼 때는 각양각색으로 쓰임을 받는 구조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건축이 완공되어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건축 진행을 맡으신 분이요 또 직접 참여하셔서 일하시는 분까지 모두가 기도로 힘써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실행되길 바란다. 천국 일꾼을 키우는 새 성전,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충현 새 성전의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이제 모두가 명심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기도와 헌신으로 새로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열심히 내야겠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길 간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와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전으로 구별하여 주실 것이고 그곳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줄 믿는다.

우리 모두의 바램

이 성 은

(유년부교사)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처럼 오늘 충현에게 새 건축을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기도하며 적디 적은 물질을 바칠 뿐이다.

조감도를 대할 때마다 교육관의 어느 한 교실에서 내게 말기신 양들과 말씀을 공부할 것을 생각하며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독촉의 기도를 하곤 한다.

365일에 몇번을 곱하면 완공이 될까?

바쁘게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깊은 우물보다 더 깊은 말씀을 충분히 전해 주지도 못한 채 끝내야 하는 아쉬운 주일 오전 시간은 비단나 자신만의 고충은 아닐 것이다. 한 반이 써도 부족한 유모실(물론 다른 교실도 마찬가지지만)에서는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크신 선생님들이 아이들로서는 더 원하는 선생님일지도 모르겠다.

새 성전에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교실과 연령에 맞춘 도서실들을 기대해 보며, 앞을 가려 주는 기둥들, 양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까칠한 마루, 좁은 마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마음과 물질을 바치기를 싫어하는 마음, 중요한 일들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로 미루는 게으름도 우리 충현에게는 필요없는 것들이라 생각된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오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적어 두었다가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교회의 민주적 분위기

오 태 용

요즘 정치발전의 회오리 속에서 그것의 제도적 장치가 되는 헌법을 유사 이래 가장 끝내주는 것으로 잘 만들어보겠다고 조야는 물론 경향 각지에서 백가쟁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일련의 노력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없는 서글픔에 장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완벽할 정도로 잘 해 두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신뢰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이겠기 때문이다. 또 다시 속을 수는 없다는 지도자 불신이 저변에 깔려있는지 모른다. 또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의 결여로 인해 제도적 장치를 더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심층적 원인을 찾아본다면 헌법이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를 대하고 취급하는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극상품을 뽑아내려고 도로(徒勞)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 민주주의는 기독교 전통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기독교의 전통이 깊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비록 그 제도적 장치인 헌법에 허술한 곳이 있다 해도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국민들이 조상적부터 「기록된 문서」인 성경을 생활의 지침서로 삼고 그 내용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 온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서구인의 성경에 필적할만한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훈련의 경험 또한 없었다. 그런 까닭에 헌법이라고 있어봐야 권력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줄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자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바로 그 교회 안에 비민주적 요소는 혹 없는지 차체에 우리 모두 한번씩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각 부서의 책임자가 자기의 위치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독선주의에 빠져 독단적 운영을 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교회와 사회에 주신 것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짜모아 아름다운 결과를 내어 당신께 영광 돌리라는 뜻은 아닐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161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 할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해마다 3월이 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된다. 금년에는 2월 마지막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3월말까지 계속된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수난이야말로 그 얼마나 처절했던가?

그는 인류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오해를 달게 받으셔야 했고(요 7:1-36), 시험을 받으셔야 했으며(마 4:1-11),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막 6:1-6), 그야말로 머리조차 들곳 없는(눅 9:58) 수난의 생애를 살으셔야 했고, 마침내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몸을 맡기셔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로마에서 극형의 형틀로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입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제 인간적인 욕심, 교만 다 버리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찬송을 부르자!

여기 2, 3, 4 절의 가사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며 예수님의 “머리와 수족을 보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3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흐르는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심장에 가득 채우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자! 그리고 “특별한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다”(4절)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앞에 불러 바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다. 그렇지 못하면 이 찬송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 찬송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이작·왓츠(Isaac Watts)목사가 1707년에 이 찬송시를 써서 「찬송가성가집」에 실렸는데 1824년 로웰·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박사가 작곡한 은혜있는 찬송이다.

김 하 진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2 월중에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한국교회 전화번호부: 한국크리스찬라이프사 편저. 1979. 300p.

2. 윤리학

- 1) 성도와 주님의 사랑: 피터 길키스트저. 조무길 역. 생명의말씀사, 1980. 196p.

3. 교회사

- 1) 교회사: 박영관 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207p.

4. 이단종교

- 1) 창가학회란?; 최은목저. 성광문화사. 1979.

5. 전도학

- 1) 기독교와 사회사업; 박영호저. 예수문서선교회. 1979.
- 2) 하나님의 스파이: 파노스 크리스 저. 김의자 역. 1979.
- 3) 주교전도학; 김진택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143p.
- 4) 붉은대 룯의 새벽; 씨일러스 홍 저. 북한선교회. 1978. 187p.
- 4) 박해전야: 바실레아 슈링크 저. 김창배 역. 북한선교회. 1978. 106p.
- 6) 아이다의 편지; 아이다 저. 김영국 역. 북한선교회. 1978. 170p.
- 7) 타는 풀무 가운데서; 브라자 알렉스 저. 김영국 역. 북한선교회. 1977.
- 8)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호워드 데이비드 저. 김경신 역. 예수문서선교회. 1980. 132p.

6. 교회학

- 1) 교회성장과 선교학; 장중열 저. 성광문화사. 1979. 274p.

II. 기증도서

- 1) 미국의 10대교회; 타운 엘머 저. 조해수 역.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9. <조해수목사 증>

윤영탁 역편

구약신학논문집

출신대학출판부 · 1979 · 191페이지 · 2,000원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와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보게도 되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만한 좋은 서적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한 윤영탁목사님께서 이번에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길잡이가 될 「구약 신학 논고」란 세계 석학들의 논문들을 모아 번역, 출신대학 출판부에서 내어 놓게 된 것은 꼭 다행스러우면서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통하여 평소에 생각하던 난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고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에 후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력을 영혼 깊숙한 곳에 불어 넣는 파워어 (power)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은 번역에 있어서도 훌륭하다. 가끔 보면 어떤 책들은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으므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짜증을 느끼게 하나 이 책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맥크레이의 "창세기 1,2장의 해석 원리"를 비롯해서 그린의 "창세기의 연대", 홉킨스의 "십계명의 이해", 웅스텐베르크의 "욥기 해석"과 "새 언약", 마틴의 "시편에 나타난 저주", 오르의 "구약에 나타난 부활사상"등 주옥과 같은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독자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하진 목사 <성경학원 · 성가부지도>

생활속의 윤리(4)

〈성〉

김 하 진목사

(성가부·성경학원지도)

오늘날 프로이드 심리학(Freudian Psychology)과 향락주의적 개인주의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성적 교제에 많은 난조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성적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신경병(neurosis)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성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금령들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신경병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성행위의 개방은 가정 생활의 파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인격까지도 파산을 당하게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주장된 심리학적 견해는 오히려 기독교내에서 주장하는 항구적인 남녀관계의 정당성을 재강조하는 결과 밖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 이외에서의 성적관계는 있을 수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성적관계는 결혼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이다. 그 이외에서의 성관계는 다 신물(神物)행위일 수 밖에 없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형편에서 얼마후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불변의 정절이나 항구적인 책임을 보증할 수 없으며 그 성적 교제 자체가 그들의 결혼 관계를 경시하

게 되어 그들의 사랑에 종말을 고평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조급한 성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런데 혼전 성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세계 제 2 차대전전에 루이스 티만(Lewis Terman)은 혼전 성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용인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으며, 그 후 1960년대 미국의 생물학자 코흐(Leo Koch)는 머르독(George Murdock) 교수와 같이 혼전 성관계를 시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요세프플레처(Joseph Fletcher)교수도 성서가 혼전 성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한 곳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성행위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리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관한 한 성행위는 결혼을 떠나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소자를 꺾이는 것이나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호간 동의할 수 있는 성인들의 성행위는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

하시는 태도가 아니며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결혼을 떠난 성행위는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이것도 기독교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충성과 사랑 등 높은 차원의 정신적 표현이어야 한다. 어떤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성의 역할은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일치성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혼의 경험(성생활)을 통하여 하나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성관계는 두사람 이상을 결코 생각할 수는 없다. 성행위에 있어서는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정복자로 나타날 수도 없다. 양자는 상호성의 정신아래서 그들의 성적관계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적인 연합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상호의존이다.

따라서 부부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였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관계에서 성적인 열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접근을 하게 되며 사랑을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부부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주고 받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종족보존이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창 1:28) 특히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시 127:3)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인간을 통하여 계승하게 하신다. 따라서 부모된 자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부모는 성으로 인한 축복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덕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성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공격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이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 안에서 성의 욕구와 충동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향락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은 잘못되기 쉽다. 또한 후손을 남기기 위한 성적행위 만이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영육이 일치된 애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파이크(James A. Pike) 씨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성적 교제는 일종의 예전적(Sacramental)의미를 갖고 있다. 예전은 내면적, 정신적 은혜의 한

외부적 보이는 표시(Visible sign)이다. 내면적, 정신적 요소는 소망과 두려움, 강력과 연약 등의 전적 항구적인 본원지이다. 그리고 외부적 보이는 표적은 다른 여러 예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표현이요, 은혜의 방법이다....

혼 이외의 성생활은 불가하다. 그것은 성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에서 표시되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없이 성관계에 침륜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 나쁜 정도는 그 선한 정도에 정비례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인 경우에 그것을 잘못 다루는 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 된다.”

어쨌든 성인에게 나타나는 성적 충동은 생리적인 본능이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번식을 위하여 주어진 설계이며 그 본능이 없이는 인간이나 동물이나를 막론하고 종족 계승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할 일은 매수임이 독신의 율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결혼하는 것은 죄라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든지 하는 취지의 율법은 정하지 않았다. (고전 7:7) 그러므로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만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혼과 성행위에 관한 윤리는 독신과 성행위에 빠지는 것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약 독신의 서약을 해 놓고 결혼관계에 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적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망각한 죄악된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하여 말하기를 “정욕이 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제할 수 없다

는 것은 결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충동의 출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혼에는 많은 고난과 근심과 불안이 수반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욕이 타오르므로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낫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어떤 경우에 중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로 동의에 의하는 일이다. 물론 일방적인 거부도 금지된다.

둘째, 일시적이어서 영구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생활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확실히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금식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만 서로 나눠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고전 7:5)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반면에 위지 않고 성행위에만 몰두한다면 몸이 쇠약해 질 뿐 아니라 이역시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되 이를 통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쇠약하여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며, 서로의 인격이 좀더 승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 월보

선교 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서 만 수선교사

1. 비자 연장 해결

할렐루야! 수속했던 비자 연장문제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되어 81년도 말까지 다시 선교활동이 연장되었습니다.

온 교우의 기도예 감사드립니다.

2. 순회 전도 시작

3월 3일부터 서선교사님은 오지 사역을 위해 순회 전도를 떠나셨습니다.

금년 목표는 30명 현지 전도인을 양육하여 파송할 계획입니다.

3. 인도네시아의 부교역자 초청문제

서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자카르타한인교회를 담당할 새로운 부교역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선교에 서선교사님께서 보다 힘을 기울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줄 압니다.

* 기도 제목 *

1. 금년목표인 오지사역자 30명을 양육하고 파송할 수 있도록
2. 순회 전도중이신 서선교사님을 위하여
3. 적절한 부교역자가 선발되도록
4. 정영옥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홍콩—홍종 만선교사

1. 마카오 선교교회 3월 8일 창립예배를 드리다.
30여명 참석
 - ① 교역자: 엽 영택목사(중국인)
 - ② 위치: 중국대륙에서 약 5km 이내 지점
 - ③ 전도대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
2. 금년 7월에 중국선교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강사교섭을 끝낸다. (카프만박사와 엽 영택목사)
3. 중국선교를 위해 「한중선교협력홍콩센터」를 조직하고 첫 사업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편지」를 정기적으로 격월로 발간하기로 하고 창간호를 이미 발행하다. 이 간행물은 국내에서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교회에 제공함으로

써 중국선교의 구체적인 기도와 지원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홍콩한인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임승원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와 수양회를 가질 예정이다.

* 기도 제목 *

1. 한인교회의 부교역자 초청문제를 위해
2. 홍선교사님 내외의 건강을 위해
3. 중국선교를 위해

애굽—이준교·김신숙선교사

1. 이준교선교사: 아랍어 훈련과 한인교회 시무 중
2. 김신숙선교사: 신학교도서관에서 문서 선교에 힘쓰고 있음
동산토건 기능공들 위한 예배 및 심방 실시
아랍어 언어 훈련 계속 중
고 이연호 선교사의 사고 뒷처리에 대한 자세한 보고

* 기도 제목 *

1. 두 선교사의 영·육의 강건함과 언어훈련을 위하여
2. 이선교사의 노동허가를 얻는 문제를 위하여
3.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하여
4. 애굽현지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서독—육호기선교사

<뮌헨부락 한인교회>

1. 교회부흥을 위한 구역확장을 위하여
구역장기도회를 가짐
2. 성경암송대회를 가짐: 야고보서전장
3. 학습 및 세례준비를 위한 공부
4. 성례식 거행

<비즈바덴 한인교회>

1. 토요일기도회가 크게 부흥되어 교회부흥과 자체 교회건물을 위해 합심기도 중에 있음
2. 학습 및 세례준비를 위한 성경공부 실시
3. 성례식 거행

<하나우 한인교회>

〈제 6 회 선교 주일에 가졌던
선교전시회—홍콩편〉

1975년 9월 23일 홍콩만선교사를

홍콩편	종교
불교 유교	88%
도교	1%
카톨릭	6%
기독교	6%

면적: 400㎡
인구: 4백5십만 명
인종: 중국 광둥인 96%
기타 2%
(인도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일본
포르투갈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일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언어: 광둥어 영어

선교 문제점과 전략

1. 약 600개의 기독교회가 있는데 중국교회
는 거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행정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가 적다.
2. 중국을 선교하는 전략요령으로서 라디오
광둥어와 영어로 종교 프로그램을 짜서
중국어 북을 편파할 수 있다.
3. 현재는 성경보내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여행이 가능하여
선교에 넓은 전장을 가져다 주는 곳이다.
4. 국제도시로 동남아 열대와 중국 그리고 북방
까지 선교할 수 있는 전략 요령지로서
참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1. 성례식 거행
2. 춘계 대심방 실시
3월 1일은 민족복음화와 교회부흥을 위하여 전
성도들의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함.

* 기도 제목 *

1. 새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비스바덴 교회의 자체 건물 구입을 위해
3. 육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호 주—김 태 현선교사

1. 성례식 거행
세례: 5명, 입교: 1명, 유세: 1명.
※ 성례식을 위한 예비공부: 1회
2. 신년 예배 실시 (1월)
3. 심방 실시
4. 특별모임: ① 특강 ② 영화감상
5. 교역자 회의 실시
6. 공동회의 실시
7. 교회대청소 실시
8. 한인회 고문으로 추대됨

* 기도 제목 *

1. 교회부흥을 위하여
2. 김목사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아르헨티나—백 성 룡선교사

1. 교사수련회 인도
2.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인도
3. 학생수양회 및 부흥회 인도
4. 권찰, 제직훈련 인도
5. 성가대 및 청년수양회 인도
6. 구역권찰회 조직
7. 남전도회 조직

* 기도 제목 *

1. 백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이권사님 성경공부 인도
2. 전도 결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중
3. 대합실전도 및 입원환자에게 개인전도 계속중

* 기도 제목 *

1. 유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2. 전도 결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겨울방학중 (2월 18일~4월 중순)에 박사학위 논
문 쓰는 일에 계속 집중하고 있음.
2. 피터 바이엘하우스 박사의 선교학 강의 참석할
예정 (4월 중순~7월 중순까지)

* 기도 제목 *

1. 논문이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2. 박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인 도—엘리아 겔간선교사

1. 3월초에는 독일에 들려 조부가 타벤트언어로성
경을 번역했을 때 함께 일을 하였던 집에 머무
르면서 성경번역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음.
2. 이어 파리에 들려 모라비안교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카시미르지역에 19세기
에 성경번역을 위한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이다.
3. 3월중순경에 선교현장인 카시미르 라다크에 도
착할 예정이다.

* 기도 제목 *

1. 카시미르의 영혼들을 위하여
2. 겔간선교사의 선교열매를 위하여

본 부—해외복음선교회

1. 김영휘전도사 3월 1일 무사히 귀국
2. 3월 30일 선교회 월례회 예정—김영휘 전도사 동
남아선교여행 보고회 예정

2월중 새 교우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수유 구역 양승자 도봉구 수유 3동230-4, %
우이 ② 구역 정이금 도봉구 수유동130-100, %
광희 ② 구역 박은숙 중구 쌍림동146-37, %
광희 ② 구역 이순숙 중구 쌍림동146-24, %

● 2지구

중화 ① 구역 박양환 동대문구 목동114-7, %
답리십구역 이상미 동대문구 답십 2동27-13, %
마 장 구역 김명집 성동구 마장 2동342-6
마 장 구역 원세연 성동구 마장동399-92, 연립주택
8동203호

신당 ③ 구역 최인숙 중구 신당동236-245, %
마 장 구역 한봉숙 성동구 하왕1동242-62, %
마 장 구역 최순자 성동구 행당동 1호 %

● 3지구

성수 ② 구역 홍경은 성동구 성수동1가13-440, %
잠실 ① 구역 김순남 강동구 잠실주공1단지36동309호
삼 성 구역 이원정 강남구 삼성동 A.I.D. 16동409호
약수 ① 구역 박용정 중구 신당3동351-254, %
약수 ① 구역 윤경숙 중구 신당동351-171, %
잠실 ④ 구역 궁석윤 강동구 잠실3동 주공4단지아파트
435동304호

묵정 ② 구역 유근경 경기도 고양군 중면 백석리
강남 ④ 구역 신영택 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331동
505호

묵정 ① 구역 김민정 중구 묵정동11-43, %
성수 ① 구역 신현식 성동구 성수동 2가302-8
장충 ③ 구역 김복성 중구 장충동 2가193-39, %

● 4지구

보 광 구역 이정숙 용산구 보광동265-989,
인현 ③ 구역 김선희 중구 충무로 4가145, %
회 현 구역 이명자 용산구 도동 2가95-27
서 강 구역 최순이 마포구 토정동4-5, %
화 원 구역 이우악 중구 충무로 4가51-1, %

필동 ③ 구역 유석진 중구 필동 3가79-2
청 파 구역 김원주 용산구 청파동3가130-1, %
봉천 ① 구역 이봉규 관악구 봉천 4동170-2, %
신 길 구역 제갈원 영등포구 신길4동197-6

● 5지구

신촌 구역 팽경숙 서대문구 연희동188-3, %
당 산 구역 오경록 영등포구 문래동3가76, %
남가좌구역 이지호 서대문구 남가좌동1가360-16
구로 구역 조용수 영등포구 구로3동787-55, %
종로 구역 박성배 종로구 익선동33-8
망원 구역 박제일 마포구 서교동475-48
망원 구역 김경숙 마포구 합정동417-16
서대문 ② 구역 김순자 중구 만리동 1가38, %
화곡 ① 구역 김교일 강서구 화곡 3동993-21, %
합동주택 사동 4-1호
홍제 구역 김전석 서대문구 홍은동 3가292, %
응암 ② 구역 차윤자 은평구 응암2동306-29, %

새로 나오신 교우는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 50분에 동관 3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이
니다.

* 축하합니다 (2월중 결혼)

- 이환기군(유병순집사 시동생) 2월 2일 12시 청주예식
식장에서
- 이방순양(한금희집사 장녀) 8일 오후 1시 신문회관
3층에서
- 이해철군(공향동) (홍순애양(마포구역) 9일 오후
3시 30분 L. C. I. 에서
- 김경립양(답십리구역 서원희씨 딸) 9일 오후 2시 청
량리 성결교회에서
- 조선희양(조철일목사 2녀) 14일 오후 2시 본교회당
에서
- 신경자양(이순례권장 장녀) 12일 12시 엠베서더 호텔
에서
- 박종화군(박근준집사 이신일권사 아들) 18일 12시30
분 본교회당에서
- 장주영군(장명규집사 김정숙권사 2남) 과 박이숙양

- (박창순씨 박영규집사 장녀) 23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은태군(제이성가대원)과 이옥주양(제이성가대원) 26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전계식군(마포구역)과 조중선양(윤재춘권사 딸) 27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위로 드립니다 (2월중 별세)

- 김동순(타교회) 집사 (강봉옥집사 부군) 11일 별세 14일 장례
- 김인석씨(중화①구역) 18일 별세 20일 장례
- 김윤성권사(김복희권사 모친) 16일 미국에서 별세 23일 장례

- 전홍구씨(반포①구역) 22일 별세 25일 오전 9시30분 자택에서 장례 예정
- 김봉룡씨(봉천②) 25일 별세 27일 장례
- 이순례씨(명륜구역) 28일 별세 3월 1일 장례
- 임문출씨(박성기권사 부군) 28일 별세

인사이동

1. 신규임명

정명화 부친구역권찰로

2. 이 동

배옥인 강남5구역에서 반포2구 권찰로

* 권찰수첩 *

효과적인 심방

김 재 창목사

(심방위원 회위원장)

1. 구역권찰의 사명의식

권찰직분은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급하는 존귀한 사명자들이다. 우리 교단 헌법적 규칙에 보면 "믿음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여 매주일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고 전도하며 구역기도회를 가지며 매월 정기권찰회를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서 권찰직은 목회자를 도와서 심령을 위급하는 일에 관여하는 중요한 사명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권찰들이 교인들과 접촉할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을 키워주며 위로하며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이나 후덕스러운 행동으로 감화를 주도록 힘써야 한다.

2. 심방의 중요성

1)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 오신데에 근거한 심방이다. 창3:9에 보면 범죄하여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방하시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반민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죄악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눅19:9, 1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3) 사도들이 심방을 힘썼다. 행18:23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를 보아 사도들이 심방을 부지런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4) 교회사적으로나 현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보면 심방이 교회 부흥의 열쇠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효과적인 심방은 권찰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고 심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66 : 1 - 4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유대인이나 목사나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할 바의 일입니다. 속으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동시에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열에 나 같은 자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데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깨닫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66 : 5 - 7

선민을 위한 일을 통한 교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임위하시도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앞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며 도보로 건너가게 하신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인류의 역사와 자연의 움직임을 다스리시되 그 기한은 영원한 것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으로 성도를 살피시는 동시에 불꽃같은 심판의 눈으로 열방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함부로 반역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시66 : 8 - 12

현재의 선민을 돌보아 주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기때에만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당신의 백성을 위하

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않습니다. 속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걸 사람이 여러가지로 위험한 지경에 떨어져 낙심할 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아울러 실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지만 합격자를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점점 더 나아올 수 있는 복을 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여러가지 환난가운데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연단을 시키신 후에 승리와 평안과 영육간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66 : 13-15

환난날의 서원을 갚으심

『내가 환난날에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졌으니 나는 번제물(감사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소에 들어 가서 환난날에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사정하며 살려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대로 지금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앞에서 내 입을 열어 작정한 것을 잊어 버리거나 또 알면서도 어물 어물 날짜나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앞에 신용을 지켜서 약속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시66 : 16-20

성도의 간증을 들을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자라야 간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 찬송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비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계속하여 들어 주심을 생각하니 나는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얼마다 기도로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받아 누리게 됩니다.

* 교회소식 *

겨울 계절학교 모두 마쳐

금년초부터 시작한 겨울 계절학교가 지난 2월28일 유치부 계절학교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기도원과

본 교회당에서 대내·외의 강사를 모시고 모인 금년 겨울 계절학교의 각부별 실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980년계절학교(겨울) 결과보고서

구 분 부 별	행사명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기 간	장 소	강 사		참 가 인 원				지 출	
							대 외	대 내	학생	교사	기타	계	예 산	결 산
1. 어새부	제17회 성경학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시100:2	새 590장	1.28-1.31	본교회		안석렬	101	19		120	208,200	250,300
2. 영아부	제10회 성경학교	무엇이 좋을까요?	시16:5-6	하나님이 주신엄마	2.21-2.22	본교회		김종택	353	75	312	741	251,245	251,245
3. 유치부	제11회 성경학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12:2		2.25-2.28	본교회		이양우	275	54		329	495,850	491,830
4. 유년부	제17회 성경학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12:2	새 309장	1.28-1.31	본교회		김종택 이양우	341	69	10	420	677,600	784,870
5. 초등부	제17회 성경학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12:2	새 327장	1.28-1.31	본교회		최봉호	326	54	12	392	708,400	708,670
6. 중등부	제10회 수양회	오직 십자가만	갈6:14	새 159장	3.5-3.8	본교회	원우연	이승근 김정훈 김영희	529	125	2	656	539,000	425,250
7. 고등부	제10회 수양회	굳게 잡아라 믿음	딤후 3:14	새 619장	1.21-1.24	본교회	김진택 이상규		171	22		193	536,200	458,310
8. 대학부	제9회 수양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2	새 202장	2.20-2.23	본교회		박윤선 차영배	150	19		169	320,000	425,180
9. 산교부	제3회 수양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빌1:27	새 309장	2.14-2.16	충현 기도원	조성범	유재일	153	72		225	290,500	380,500
10. 선교부	제1회 춘 연	좋은 소식을 전하는사람이되자	롬10:14-15	새 621장	1.22-1.25	강원도 기린·정선		조준상 유국남	8	2		10	226,000	226,000

동산관리업무에

박 창 수 장로 선정

당회는 고 김창배장로 후임으로 박창수장로를 선정하였다. 박창수장로는 자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동산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며 자산관리위원회 업무도 담당하시게 된다.

또한 김자애선생은 교육위원회 상근 직원으로 발령했다.

교역자 및 직원

월요일을 휴무일로

당회는 격주로 수고하고 있는 교역자 및 교회 직원들의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이 월요일 휴무일에는 전 교역자와 직원이 근무치 않게 됨으로 모든 교인들은 이를 잘 알아서 교회의 일에 대처하기를 바라며 또한 휴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 교역자, 직원들의 당직자가 있게 되어 급한 일이나 전화문의 등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육위원회 부지도로

정 은 표·전도사 임명

당회는 정은표전도사를 교육위원회 부지도로 임명했다. 정전도사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총무국 간사로 수고하여 오셨는데 금년에 총회 신학대학 연구원에 입학하게 되어 총무국 간사를 사임하고 부지도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오는 4월23일부터

청년 부흥회 개최

청년부는 오는 4월23-27일(5일간) 본 교회당에서 길자연목사를 강사로 청년부흥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너는 일어나 일하라」이다.

대학부 총회

주일학교 대학부는 지난 2월3일 별관 4층 대학부실에서 면려회 정기총회로 모여 지난해 사업보고 및 회장단 선출등을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재영군을 회장으로, 이미경양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토막소식

*...사무국은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북한선교회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태훈씨를 새로 채용했다.

*...성경학원은 지도자 양성부 제16기 수료식을 지난 2월24일 저녁 예배 후에 마쳤다.

*...제일여전도회는 지난 2월24일 저녁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이 날은 회교권선교 총책임 거니박사가 설교를 하였다.

*...영아부는 2월 1, 2일 양일간 「말씀을 생활화 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자체 교사수련회를 가졌고 또 2월 7일은 학부모초청좌담회를 가졌는데 62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유치부는 2월10일 오후 십계명·사도신경 외우기를 했는데 205명의 어린이가 참석 또한 성경학교 기간인 2월25일·28일에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유년부는 2월 한달을 전체 학생 심방의 달로 정하고 학생심방을 실시했다.

*...초등부는 2월 3일 저녁 동관 3층에서 어린이회 주최로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렸다. 강사는 이진희선생, 교사10명 학생53명이 참석했다.

*...중등부는 2월 한달을 전체 학생심방의 달로 정하고 심방을 실시했다. 또한 2월10일 오후에는 별관 4층 예배실에서 교사 초청 좌담회를 실시했다.

*...고등부는 지난 2월22일 당회실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27일 오후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했으며 2월 29일 3월 1일에는 기도원에서 3학년 수련회를 가졌다.

*...대학부는 2월28일부터 3월 1일까지 기도원에서 임원 및 조장 훈련을 가졌다. 김남수·성주진 전도사를 위시해서 학생33명이 모였다.

*...장년새신자부는 2월10일 새신

자부실에서 학생 신앙간증회를 가졌다.

*...장년부는 2월24일 장년부실에서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했는데 330명이 참석했다.

*...노년부는 2월17일 노년부실에서 「구원과 상급」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는데 강사는 신성종 목사.

*...산업전도 교육부는 2월24일 유치부실에서 신앙간증회를 가졌다.

인사이동

1. 성가대

가. 임명

김경애 제일성가대 소프라노
고제숙 제일성가대 앨 토
김경숙 제일성가대 앨 토

최동규 제일성가대 테 너
남궁은 제삼성가대 지 휘

나. 퇴임

김영준 제삼성가대 지 휘
이재훈 제일성가대 베 이스
교회재 제일성가대 앨 토

다. 이동

배은희 제이성가대에서 제일성가대로

2. 주일학교

가. 임명

초 등 부 최영희(여)지휘

나. 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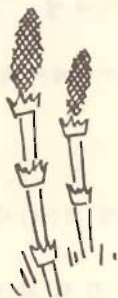
어 새 부 김태희(남)
영 아 부 김경림(여)
유 치 부 정영선(여)
유 치 부 장경애(여)
유 치 부 홍정옥(여)
중 등 부 조덕희(여)

각종 통계

1980. 2. 3 (매월 첫 주 기준)

예배	구분		남	여	계	신	총세대수		3,410					
	주일당	I부	146	313	459									
		II부	396	895	1,291									
		III부	389	937	1,326									
		IV부	228	542	770									
주 일 저 녀		195	319	514	급	교인	남	3,059						
	삼 일 저 녀	112	309	421 <th rowspan="2">총수</th> <th rowspan="2">여</th> <th colspan="2">4,631</th>				총수	여	4,631				
주	어린이새신자부		41	27	68 <th rowspan="5">별</th> <th rowspan="5">세례</th> <th rowspan="5">입교</th> <th rowspan="5">계</th> <th colspan="2">7,690</th>	별	세례			입교	계	7,690		
	영 아 부		120	86	206 <th rowspan="4">남</th> <th colspan="2">1,691</th>			남	1,691					
	유 치 부		124	126	250 <th rowspan="4">여</th> <th colspan="2">3,151</th>				여			3,151		
	유 년 부		190	200	390 <th rowspan="4">계</th> <th colspan="2">4,842</th>							계	4,842	
	초 등 부		183	204	387 <th rowspan="4">남</th> <th colspan="2">456</th>								남	456
일	장년새신자부		34	53	87 <th rowspan="5">교인</th> <th rowspan="5">유아</th> <th rowspan="5">세례</th> <th rowspan="5">계</th> <th colspan="2">319</th>	교인	유아	세례		계	319			
	중 등 부		135	155	290 <th rowspan="4">여</th> <th colspan="2">775</th>				여		775			
	고 등 부		146	143	289 <th rowspan="4">남</th> <th colspan="2">254</th>						남	254		
	대 학 부		78	71	149 <th rowspan="4">여</th> <th colspan="2">368</th>							여	368	
	학	청 년 부		55	82								137 <th rowspan="5">현</th> <th rowspan="5">학습</th> <th rowspan="5">교인</th> <th rowspan="5">계</th> <th colspan="2">622</th>	현
장 년 부		26	323	349 <th rowspan="4">남</th> <th colspan="2">658</th>	남	658								
노 년 부		37	112	149 <th rowspan="4">여</th> <th colspan="2">794</th>		여	794							
산 업 교 육 부		24	66	90 <th rowspan="4">계</th> <th colspan="2">1,452</th>			계	1,452						
교		선 교 부		35				66	101 <th rowspan="5">황</th> <th rowspan="5">원입</th> <th rowspan="5">교인</th> <th rowspan="5">계</th> <th colspan="2"></th>	황	원입	교인	계	
	새 가 정 부		18	33	51 <th rowspan="5">남</th> <th colspan="2"></th>			남						
	계		2,712	5,062	7,774	여								
							계							
									계					

3월중 행사



- 2 일 정기제직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회
재정위원회, 산업전도회
- 5 - 8 일 중등부수양회
- 7 일 전체철야기도회, 구역예배
- 9 일 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12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6일 여전도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선교실행위원회,
제 2 여전도회 헌신예배
- 17일 교육위원회
- 19일 권사철야기도회
- 23일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중등부헌신예배
- 30일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편집하고 나서

*...고난주간을 맞으며 고난주간 특집을 꾸몄다. 점점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생각하고 확인해야 할 것 조차그저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바쁜 가운데도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이 담긴 복음서의 뒷부분들을 읽고 명상하며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고난주간 특집을 마련했다.

*...또한 이달의 지상특강은 정상우목사님의 성례전에 관한 내용을 실는다. 매년 봄·가을 성례전을 행하는 우리는 과연 성례전의 의미와 성례전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알고 행한다면 한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0여년 이상 끌어 온 새 성전건축의 시작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과와 시정을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셨다. 이제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 성전의 아름답고 편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의 일로 생각하고 노력할 때만이 되어 지는 일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해보다 훨씬 어려운 해이지만·이런 가운데서도 새 성전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3 월호

제 8 권 제 3 호

통권 제 75 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3월30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주 간/윤형철

편집인/조현명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세례란 무엇인가 교인이 되는 증인(証印)의 예전

허 준목사

〈부목사·심방담당〉



세례(Baptism)는 교회가 집행하는 성례전(聖禮典) 중의 하나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표시이다. 물을 손으로 머리에 적시면서 안수하거나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그리스도교에 입교하는 것을 증거하는 외적 의식이다. “세례”란 말은 “적신다” 또는 “잠긴다”는 뜻의 헬라어 바프티스마(βαπτισμα)에서 온 말이다. 이 행위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증인(証印)으로서 집행한 예전이였다. (고후 1:22, 엠 1:13, 4:30)

세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 세례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서 내적 은혜에 대한 외적 상징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세례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세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나타내는 인(印)치는 것이다.

세례의 외면적 표는 물이다. 성경에서 물은 죄를 씻는 표로 나타내 주고 있다. 물의 사용에 표시된 내적 은혜는 죄책(罪責)과 오염(汚染)에서의 정결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를 통하여 우리 죄인이 유죄성(有罪性)에서 정결함을 얻는 표시이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고 외쳤다. 세례는 죄의 오염 혹은 우리 심령의 더럽힘에서 정결케 되는 내적 은혜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들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주님은 신생시(新生時)에 일어나는 죄의 오염으로 부터의 정결을 나타내는 상징을 물에서 받

건하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하였다.

둘째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의 표가 된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확증하고 더욱 견고(堅固)케 해준다. 문서상의 인(印)이 그 안에 포함된 증거를 확증하듯 세례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유익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견고케 하는 의도를 준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할례의 의식으로 소급된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백성과의 서약을 나타내는 성례의 표시로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표적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롬 9:6) 그러므로 세례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로 그 완성을 기약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 속에서 받아 들여져야 한다. 구약에서 할례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외적 인침이었음을 우리는 고찰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롬 4:11) 신약의 세례는 단순히 구약에서의 할례를 대신한 것이다. (골 2:11, 12)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인(印)침이 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의 모든 축복 중에서 우리가 그의 것이요 그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약속했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은혜의 약속을 확증하고 견고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례의 인침을 주었다는 뜻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 장 26 - 34절〉

실로암
못가에서